코로나19 하루 확진자 23만명…역대 최다

치사율은 4.4%로 떨어져
치사율 1위는 프랑스 17%
미국은 4.0%·한국 2.2%

전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3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지난 11일 기준 4.4%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UPI통신은 지난 5월 1일 7.2%까지 치솟았던 치사율이 72일 만에 이같이 떨어졌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1일 기준 사망자는 24만명, 확진자는 335만명이었는데, 지난 11일 기준 사망자는 57만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확진자는 1288만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사례가 보고된 이후, 유럽으로 퍼진 뒤 미국으로 확산했다고 UPI는 지적했다. 확산 거점은 북미에 그치지 않고, 멕시코나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남미로 번져 나갔다.

코로나19 보드와 UPI에 따르면 미국은 전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치사율은 세계 평균을 밑도는 4.0%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5월 1일 3만6000명에서 지난주 7만명대로 폭증했다.

14억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의 치사율은 5.5%다. 확진자는 8만4000명, 사망자는 4634명이다. 지난 4월 26일 이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다음 진앙이 됐던 이탈리아의 치사율은 이보다 심각한 14.4%다. 다만, 지난 11일 기준 신규확진자는 188명에 그쳐 지난 3월 21일 기록했던 6553건에 비해 급감했다. 이탈리아의 사망자는 12일 기준 9명 늘어난 3만4954명이다.

유럽에서는 영국(4만4819명), 프랑스(3만4명), 스페인(2만8403명) 등이 사망자가 많은 국가다. 치사율은 프랑스(17.6%), 벨기에(15.6%), 영국(15.5%) 순으로 높다.

사망자가 7만15154명, 확진자가 335만7127명으로 세계 2위인 브라질의 치사율은 3.9%다. 하루 신규확진자는 지난달 19일 5만5209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은 뒤 11일 기준 3만6474명으로 내려갔다. 하루 사망자는 1000명 이상으로 넘어가 세계 최고지만, 11일 기준으로는 968명에 그쳤다. 멕시코의 사망자는 3만4730명으로 세계 5위다. 치사율은 11.8%에 달한다.

아시아에서 중국보다 사망자가 많은 국가는 필리핀(1372명)밖에 없다. 일본의 사망자는 996명이며, 치사율은 4.4%로 세계평균 수준이다. 한국의 사망자는 289명이며, 치사율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2.2%에 그쳤다. /연합뉴스

폭우에 잠긴 中 양쯔강 표지판 중국 동부 장시성 난징을 지나는 양쯔강 강변의 표지판이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중국 남부 지역 곳곳에서는 지난달부터 폭우가 지속돼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국내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도 빈부 격차
인도서 640만원
다이아몬드 마스크 등장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 중인 인도에서 마스크가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싸구려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한 빈민층이 넘쳐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마스크로 부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ANI통신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서부 수라트의 한 보석상은 최근 다이아몬드가 박힌 마스크를 팔기 시작했다. 가격대는 15만루피(약240만원)에서 40만루피(약 640만원)로 매우 비싸다. 마스크라기보다는 명품 액세서리인 셈이다. 보석상 측은 결혼식을 앞두고 독특한 마스크를 원하는 신랑·신부가 있다는 점에서 제작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한 고객은 "가족 결혼식 때문에 보석을 사러 왔는데 다이아몬드 마스크에 더 끌렸다"며 "내 드레스에 맞추기 위해 이 마스크를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부 푸네에서는 기업인 샨카르 쿠르하데가 28만9000루피(약 460만원)짜리 황금 마스크를 주문 제작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8일 동안 제작된 이 마스크에는 60g의 금이 투입됐다. 마스크에는 금이 얇게 입혀졌고 작은 숨구멍도 뚫렸다. /연합뉴스

스페이스X, 한국 첫 군사위성 싣고 최단기 재발사 '도전'

오늘 오후 플로리다 발사

우리나라의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i)-Ⅱ'가 14일 오후(이하 미국 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첫 유인 캡슐을 쏘아올린 로켓을 재활용해 발사된다.

우리나라에는 첫 군사전용 통신 위성이라는 의미가 크지만 국제 우주산업계에서는 지난 5월 30일 '크루 드래건'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발사한 뒤 회수한 팰컨9 B1058 로켓을 역대 최단기인 44일 만에 정비해 재발사에 나서는데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주 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Space.com)과 테슬라와 스페이스X 관련 정보를 전하는 '테슬라라티(TESLARATI)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11일 팰컨9 로켓 1단 추진체에 대한 '정지발사점화시험'(static fire ignition test)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4일 오후 5시~9시(한국시간 15일 오전 6시~10시)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 제40 우주발사장에서 이뤄질 본 발사를 앞두고 최종점검 성격으로 진행됐다.

팰컨9 로켓은 아나시스-Ⅱ를 정지궤도에 이르는 중간단계인 정지천이궤도(GTO)로 올려 놓게 되며, 아나시스-Ⅱ는 자체 추진시스템을 이용해 한반도 3만6000㎞ 상공의 정지궤도(GEO)로 이동하게 된다. 아나시스-Ⅱ는 에어버스의 유로스타 E3000 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팰컨9 로켓이 임무에 성공하면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가 지난 1985년 말에 세운 최단기 재발사 기록을 약 9일 단축하게 된다. 당시 아틀란티스호는 54일 만의 재발사 기록을 갖고 있다. 8/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40〉 금 태종

금 태종(1075~1135)의 이름은 완안성(完顔晟)으로 금나라의 2대 황제(재위 1123~1135)다. 여진족 이름은 오걸매로 1대 황제 아골타의 동복 동생으로 요나라와 북송을 멸망시켜 금 왕조의 토대를 굳건히 하였다.

헤이룽장성 하얼빈 주변의 아시허 지역에 사는 생여진의 일족인 완안부 족장 핵리발의 4남으로 태어났다. 1113년 형 아골타가 족장이 되자 최측근으로 국정 운영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형 태조가 1123년 9월 수도인 상경 회령부로 귀환 도중에 병사하자 뒤를 이었다.

태조는 1121년 북송과 비밀리에 해상(海上)의 맹(盟)을 맺었다. 북송이 매년 세폐를 보내고 북송과 금이 요를 공격할 때 금이 장성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왕조 멸망의 위기에 몰린 요의 천조제는 북송과 밀서를 교환하고 있었다. 1125년 금군에게 체포되었다. 북송의 배신에 격분한 금 태종은 대군을 동원해 북송을 정벌하기 위해 남하했다. 연경을 지키던 북송의 곽약사 군대는 금군에 투항했다.

요·북송 멸망시킨 금나라 2대 황제

발해 출신의 곽약사는 금군의 선두로서 수도 개봉 공격에 앞장섰다. 겁에 질린 북송의 휘종은 퇴위하고 장남인 조환을 세우니 마지막 황제인 흠종이다. 1126년 정월 황하를 건너 개봉으로 들이닥쳤다. 휘종은 박주를 거쳐 강남의 진강으로 도망쳤다. 재상 채경, 환관 동관 등 조정의 핵심부가 모두 탈주했다. 개봉은 이강 등 주전파와 강화파의 싸움으로 금군의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양측은 강화에 도달했는데 주전파인 이강의 파면과 중산, 태원, 하간 3진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태종은 금군을 북쪽으로 철수시켰다. 개봉에서 재차 주전론이 득세했다. 태종은 북송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했다. 동년 11월 재차 황하를 넘어 개봉을 함락시켰다. 휘종과 흠종을 비롯한 수천 명의 관리, 기술자, 예술가를 금으로 압송하였다. 1127년 북송은 멸망하였다. 역사상 유명한 정강의 변이다.

휘종의 9남인 조왕 조구는 강남으로 내려가 남송 왕조를 세우고 초대 황제인 고종에 즉위했다. 금과 남송의 대치가 시작되었다. 금 태종은 장강을 넘어 남침했다. 고종은 2년간의 피난 생활을 거쳐 1132년 남송의 수도 임안으로 돌아왔다. 금군은 총사령관 종필의 지휘 하에 여러 차례 남침했으나 악비, 장준, 한세충 등 남송 장군의 분투로 정벌에 실패했다. 특히 명주 전투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 1134년 금군이 재차 남침했다. 회남 전투에서 한세충, 유광세, 악비, 장준 등이 분전해 전선을 지킬 수 있었다. 1130년 금에 인질로 잡혀있던 진회가 남송으로 돌아와 금과 남송 간 화의가 시작되었다. 진회는 1131년 범종윤을 대신해 재상이 되자 실익 없는 금과의 싸움을 종식하고 화해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데 진력했다. 그 과정에서 대금 강경파인 악비가 처형되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진회는 대대로 나라를 팔아먹은 한간(漢奸)으로 매도되었다. 결국 태종 다음 대인 금 희종 때 양국은 강화조약을 맺었다. 금 태종의 또 다른 업적은 라이벌 요를 완전히 멸망시켜 만주, 내몽고, 화북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금의 판도를 구축한 것이다. 1101년에 즉위한 요의 천조제는 정사보다는 유흥에 관심 많은 문제적 인물이었다. 금 태조는 1115년 9월 길림의 황룡부를 공격해 점령했다. 멀지않은 곳에 거란인의 젖줄인 황하가 흐르고 있었다. 천조제는 70만 대군을 조직해 정벌에 나섰다. 감군 야율장노 무리가 전선을 빠져나와 야율순을 새 황제로 옹립하려 하였다. 부득이 천조제는 서쪽으로 돌아가 반란을 평정했다. 이후 천조제는 부인과 아들을 죽이는 참극을 연출했다. 총명한 문비 소슬슬을 자살하도록 강요하고 아들 진왕도 내쳤다. 1125년 정월 결국 금군에 붙잡혔고 요는 멸망했다. 이로써 209년의 왕조가 사라졌다.

금 태종은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지만 권력 기반은 확고하지 못했다. 아들인 종반에게 재위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여진 원로들의 완강한 반대로 부자 승계는 무위로 끝났다. 결국 형 태조의 장손인 희종 완안단에게 1135년 양위하였다.